

국별 리포트

투르크메니스탄 국가신용평가 리포트

2011. 0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488천 km ²	G D P	199억 달러(2010년)
인구	5백만 명(2010년)	1 인 당 G D P	4,053달러(2010년)
정치체제	대통령중심제	통 화 단 위	Turkmen Manat(TMM)
대외정책	중국, EU 등과 협력관계 증진	환 율(달 러 당)	2.90(2010년)

-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에 이은 구소련지역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확인매장량 8.1조 m³)이며, 원유 확인매장량도 6억 배럴 수준으로 풍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국가임.
- 2007년 2월 취임한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외국인투자 유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니야조프 전 정권의 정책기조를 대부분 계승하며 국가 주도의 통제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당분간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은 요원한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러시아 외의 가스 수출대상국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투르크메니스탄과 에너지 부문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국, 이란 및 EU 등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가스 수출량이 확대되고 경제협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제성장률	11.6	9.8	-8.0	6.0	11.0
재정수지/GDP	17.0	35.4	16.7	7.7	0.5
소비자물가상승률	6.3	14.5	4.0	10.0	15.0

자료: IMF, EIU

□ 경제성장률은 성장세 회복

- 2010년 대 중국 가스수출 개시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 등에 힘입어 6%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전년의 -8%에서 크게 회복했음.
- 2011년에는 대 중국 및 이란 가스수출 증가 및 외국인투자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1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고인플레이션 우려

- 2010년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 증대, 국제 에너지 및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0%를 기록함.
- 2011년에는 외국인투자 증가 및 정부의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에 의해 15%의 높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플레이션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음.

□ 재정수지 흑자폭 축소

- 2010년 러시아로의 가스수출이 재개되고 중국 시장 등으로의 가스공급이 확대되어 재정수지 흑자가 지속되었으나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 비중이 7.7%로 전년의 16.7% 수준에서 크게 하락함.

- 2011년에는 2012년 2월 대선 및 2013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사회보장성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GDP 대비 재정수지 흑자규모가 0.5%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2. 경제구조·정책

□ 에너지 부문에 대한 높은 의존도

- 투르크메니스탄은 원유 및 천연가스 관련 수입이 총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에너지 부문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1990 년대에 전체 수출의 10%를 차지했던 면화의 생산량은 2000년대 들어 크게 감소해 수출비중이 3% 수준으로 하락함.

□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체제 유지

- 베르디무하메도프(G. Berdymukhamedov) 대통령은 2007년 2월 취임 이후 경제 전반에 대한 국가 통제를 지속하고 있으며, 보조금 지급, 가격 통제 및 전력 무상공급 등의 반시장적인 정책을 통해 정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최근 외국인투자 유치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나 육상 가스전의 경우 생산물분배계약(Production-sharing Agreement: PSA) 방식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계획이 없고 국영 에너지기업 위주로 원유 및 천연가스 분야가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외국인투자 환경의 대폭적인 개선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석유 및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

- 2010년 말 기준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8조 m³ (전세계 매장량의 4.3%)로 러시아에 이어 구소련 지역 2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며, 원유 확인매장량은 약 6억 배럴 수준임.

□ 외국인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정부 정책 도입

- 2010년 이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투자 미비 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에너지 부문 개발 및 투자 확대를 위해 외국계 석유, 가스회사들의 투자에 대해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했음.
- 2009년 이후 중국, 러시아, 독일 에너지 기업들이 PSA를 통해 카스피해의 해상 가스전 개발에 참여하고 있음.

□ 예산법 개정 및 IFRS 도입 등 경제투명성 제고 노력

-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이후 공공 재정관리 개혁의 일환으로 EU와 공동으로 예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회계기준(IFRS) 도입을 통해 경제 분야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IFRS는 2011년 말까지 투르크메니스탄 금융산업 전반에 적용될 예정임.

□ 민간 경제분야 개발 및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추진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민간 경제분야 개발이 경제구조 다변화와 경제개발 지속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등록 절차 및 세제 간소화를 추진하고 있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가스 수출로 유입된 외화수입을 건설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 투자하고, 교육 및 보건 분야 확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e	2011 ^f
경 상 수 지	4,034	3,553	-1,905	-1,105	1,500
경 상 수 지 / GDP	15.5	18.7	-16.2	-5.0	3.2
상 품 수 지	5,334	6,423	875	1,743	4,500
수 출	9,114	11,786	8,946	10,415	13,800
수 입	3,780	5,363	8,071	8,672	9,300
외 환 보 유 액	13,222	16,713	18,082	18,960	..
총 외 채 잔 액	743	638	526	1,799	3,869
총 외 채 잔 액 / GDP	2.9	3.4	2.8	9.1	16.5
D . S . R .	3.0	1.7	1.9	3.7	0.6

자료: IMF, EIU

□ 2011년 상품수출 크게 증가

- 2010년 대 러시아 가스공급 재개에 힘입어 2009년 전년 대비 24%가 감소했던 수출규모가 전년에 비해 16% 증가했으며, 2011년에는 가스 수출처의 다변화 및 수요 증가에 따라 상품수출은 전년대비 33% 증가한 138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 흑자 전환 예상

- 2010년 경상수지는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수출이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상품수입 증가와 서비스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약 11억 달러(GDP 대비 -5%)의 적자를 기록했음.
- 2011년에는 가스 수출량이 전년에 비해 증대되고 수출처의 다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3%대의 경상수지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외환보유액은 증가 추세

- 2010년 외환보유액은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한 190억 달러(월평균수입액의 20개월분)를 기록했음. 2011년에도 가스 수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외채구조는 양호한 수준

- 투르크메니스탄은 폐쇄적인 경제구조로 인해 총외채잔액 수준이 2006~09년 5억~8억 달러 수준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에너지 분야 개발 및 투자를 위한 외자 유치가 본격화되면서 18억 달러 규모로 크게 증가했음. 수출량 증대보다 외채 증가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010년 전년의 5.5%에서 크게 상승한 17.6% 수준임.
- 2011년에도 총외채잔액 규모는 39억 달러로 급증하여 총수출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30.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도 2010년 9.1%를 기록한 데 이어 2011년에는 16.5%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투르크메니스탄의 외채구조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임.

□ 외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하락

- 2010년 DSR은 연간 원리금 상환규모 증가가 총수출 증가 폭을 크게 상회함에 따라 3.7%로 상승했으나 2011년에는 총수출은 크게 증가한 반면 상환이 도래한 원리금 규모가 감소하여 0.6%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안정

□ 2007년 집권 이후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의 국정 장악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07년 집권 이후 전임 대통령 니야조프(S. Niyazov)와 유사한 대통령 중심의 철권통치 정책을 지속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민주적인 정치 체제로 전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2010년 5월 유일한 정당이던 민주당(구 공산당) 외에 농부당(Farmers' Party) 창당을 승인했으나 농부당은 실질적으로 현 정권의 엄격한 통제 하에 창설된 것으로 복수정당 제도 인정이라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외관을 갖추하고자 계획된 것임.

□ 내각 구성 안정화 유지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2007년 이후 점진적으로 니야조프 전 대통령 시절의 고위 관료들 모두 축출하고 측근을 주요 공직에 발탁하면서 국정 장악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음.
- 장관들에게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권력 강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개각을 단행했던 니야조프 전 대통령과는 달리 장관들의 임기를 가능한 한 보장함에 따라 내각 구성과 운영이 안정화되고 있음.

2. 사회 및 소요사태

□ 반대세력 및 언론통제를 통한 사회안정 유지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야당인 투르크메니스탄 민주당을 주축으로 반대세력과 언론에 대한 통제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당분간 사회 불안은 없을 것으로 보임.

□ 실질적인 저항세력이 없어 소요사태 발생가능성은 낮음

- 니야조프 전 대통령의 독재정권이 15년간 지속되었고, 베르디무하메도프 현 대통령 또한 유사한 형태의 통치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저항세력이 없고 국민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회불안사태가 야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3. 국제 관계

□ 대외관계에서 러시아의 중요성은 다소 약화

- 2009년 4월 발생한 가스관 사고로 대 러시아 가스 수출이 중단되는 등 러시아와는 가스 수출가격과 규모에 대한 분쟁이 지속되어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러시아 이외의 가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 그러나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은 잦은 분쟁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중요한 협력 상대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는 여전히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의 최대 수출상대국이며, 러시아 입장에서 고비용이 요구되는 자국 가스전 개발에 비해 투르크메니스탄 가스를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임.

□ 중국, 이란과의 협력관계 증진

- 투르크메니스탄은 2009년 12월 개통된 총 7,000km에 달하는 중앙아시아-중국 가스관을 통해 연 30억~50억 m³의 가스물량을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2030년까지 이 물량을 연 400억 m³까지 확대할 계획임.
- 2010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과 이란간 두 번째 가스관이 개통되면서 투르크메니스탄의 대 이란 가스공급 물량은 연간 140억 m³로 크게 증가해 2010~11년에는 이란이 투르크메니스탄 제1의 가스 수출 대상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EU 등 서방과의 협력 확대

-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EU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도 가스 수출선 다변화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음. 특히,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나부코(Nabucco) 가스관을 통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나 나부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의 실현 가능성이 아직 불분명한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즉각적인 적대관계를 촉발할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됨.

IV. 국제신인도

1. 국제시장 평가

□ OECD는 2008년 1월 이후 6등급 유지

- OECD는 2008년 1월 투르크메니스탄의 풍부한 천연자원에 기반한 성장잠재력과 베르디무하메도프 신정부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 등을 들어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상향조정한 이후 등급을 조정하지 않음.
- Moody's는 2010년 9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정부신용등급 평가를 지속하기 위한 자료 불충분을 이유로 2002년 1월에 부여했던 등급(B2)를 철회했으며, S&P와 Fitch는 등급을 부여한 바 없음.

* Euromoney: 155/186(2009. 9.) → 146/186(2010. 3.) → 178/185(2010. 9.)

* I.I.: 120/178(2009. 9.) → 107/178(2010. 9.) → 114/178(2011. 3.)

2. 주요 ECA의 지원태도

- 미 수은: 공공부문에 대한 제한적인 단기/중기 인수 가능
- ECGD: 단기인수는 가능, 중기인수는 제한적
- Hermes: 제약조건이 있음

3. 외채상환태도

과거 파리클럽과의 리스케줄링 경험 없음

- 투르크메니스탄은 폐쇄경제 체제로 인해 외채규모가 크지 않은 편으로 파리클럽과의 공적채무 리스케줄링 경험은 없음.

OECD 회원국의 ECA에 대한 연체실적 미미

- 2010년 9월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인수승인 잔액은 단기 15.7백만 달러, 중장기 250백만 달러로, 이 중 단기 2천만 달러 (1.3%)가 연체 중으로 연체금액의 비중은 미미하며, 회수불능 금액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

4. 우리나라와의 관계

<표 3>

한·투르크메니스탄 교역규모

단위: 천 달러

	2008	2009	2010	'11.1~8	주요품목
수 출	22,364	66,262	109,542	192,460	기계류,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자동차 천연섬유사 및 의류
수 입	177	749	456	92	
합 계	22,541	67,011	109,998	192,552	

* 자료: KOTIS, 한국무역통계

국교수립: 1992. 2. 7. (북한과는 1992. 2. 10 수교)

주요협정: 외교관여권사증면제협정, 공동협력위설립협정(이상 '08),
항공협정('09)

2010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1억 달러 수준

- 양국은 1992년 2월 국교를 수립한 이후 지속적인 교역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연도별 교역규모의 편차가 심했음.

- 우리나라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수출규모는 2008년 2,236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2009년 6,626만 달러, 2010년 1억 954만 달러를 기록하며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음. 2011년 1~8월 수출규모는 1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한편, 수입규모는 2008년 18만 달러, 2009년 75만 달러, 2010년 45만 6천 달러를 기록해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이며, 2011년 1~8월 수입규모는 9.2만 달러로 미미한 수준임.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은 기계류, 공기조절기 및 냉난방기, 자동차 등이며, 수입품목은 천연섬유사 및 의류 등임.

□ 우리나라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미미한 수준

- 우리나라의 대 투르크메니스탄 해외직접투자 누계액은 2011년 6월 말 기준 33,000달러(2건) 수준으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편임.

V. 종합의견

- 투르크메니스탄은 2010년 가스 수출상대국 다변화와 에너지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대에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회복세를 나타냈으나 사회보장성 지출 확대 및 국제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재정수지 흑자 폭이 축소되고 고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음.
- 2007년 2월 취임 이래 베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국가 주도의 통제 경제체제를 유지하고 있고 주요 공직을 모두 측근인사들로 교체하는 등 안정적으로 국정을 장악하고 있어 단기간 내에 사회 소요사태 발생 가능성은 낮음.

-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투자 미비 및 기술 부족으로 생산이 둔화되고 있는 에너지 부문 개발을 위해 외국인투자 유치 및 투자환경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가스 수출대상국 다변화에 집중해 러시아 외 중국, 이란, EU 등과의 경제협력을 증진하고 있음.

- 향후 원유 및 천연가스 등 에너지 분야가 총수출의 80%에 달하는 취약한 경제구조 다각화와 경제투명성 제고를 통한 외국인투자 활성화가 향후 투르크메니스탄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인 것으로 분석됨.

책임조사역 허정옥 (☎02-3779-5708)
E-mail : johuh@koreaexim.go.kr